

새로운 선교부 설립으로 총 선교부 수 347에 달하다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 세계 회원과 지도자들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신권 지도자들의 소망으로 유럽,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에 선교부가 설립되었고 일본의 네 개 선교부의 경계가 재조정되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선교부,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선교부,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동 선교부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로써 전 세계 선교부의 수는 347개가 되었다. 새로운 선교부들은 몇 달 후에 선교 사업을 시작한다.

일본 선교부 경계 변경

일본의 히로시마, 나고야, 동경 선교부의 경계가 2007년 3월 초에 재조정되었다.

일본 동경 북 선교부와 남 선교부의 일부가 통합되어 일본 동경 선교부로 명명될 것이다. 경계가 재조정될 일본 동경 선교부는 동경 도시 지역과 그 주변 및 그에 속한 10개 스테이크를 집중 관리하



일본 내 일부 선교부의 경계가 변경되어 일본 동경 북 선교부와 남 선교부 대신, 일본 동경 선교부가 설립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선교부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선교부가 설립되었다.

게 된다.

일본 고베 선교부는 4개 스테이크로 이루어진 오사카-고베 지역과 교토 인근에 위치한 하나의 스테이크를 포함하게 된다. 이 지역은 일본에서 여러 개의 스테이크를 가진 세 도시 중 하나이다.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선교부

동 우크라이나의 교회는 매우 크게 성장해서 이제 한 명의 선교부 회장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선교부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선교부 회장과 선교사들은 기존 지부를 강화하고,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선교부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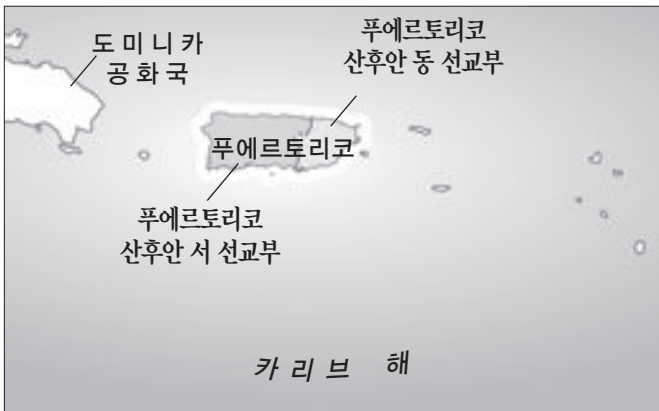
적당한 통근 거리에 있는 다른 대도시들로 구역을 넓혀가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가나 아크라 선교부로부터 분리되어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선교부가 설립되었다.

새로운 선교부들의 추가 설립으로 도네츠크 선교부의 테일 이 앤더슨 회장은 중앙 우크라이나의 지도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더 잘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역 지도자들은 훌륭하고 충실한 사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및 서인도제도 선교부가 분리되면서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동 선교부가 설립되었다.

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종자들은 충실하며 지속적인 활동률도 높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선교부

아프리카 서 지역에 가나 아크라 선교부로부터 분리된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선교부가 설립되었

다. 토고와 베냉은 가나 케이프코우스트 선교부에서 가나 아크라 선교부로 소속이 바뀔 것이다.

새로운 선교부가 인근 나라들을 포함하게 되면서 장거리 이동과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권 지도자들은 이 지역에서 새로운 회원들을 돌보고 교회 업무를 행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약 38,000 명의 회원들이 가나 아크

라, 가나 케이프코우스트,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이상 세 개의 선교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0,000명 정도가 프리타운 선교부 지역에 살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동 선교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선교부와 서인도제도 선교부가 분리되면서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동 선교부가

세워졌다.

현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선교부는 푸에르토리코 섬, 미국 및 영국령 버진 제도, 아루바 섬, 보네르 섬, 쿠라사오 섬을 포함한다.

서인도제도 선교부는 소앤티리스 열도의 기타 섬들과 인접한 남미 국가들인 가이아나,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를 포함한다.

이 두 선교부의 분리로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선교부로부터 새로운 이름의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서 선교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선교부의 본부는 산후안이 될 것이며, 이 선교부는 푸에르토리코의 서쪽 절반 지역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아루바 섬, 보네르 섬, 쿠라사오 섬이 포함된다.

새로운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동 선교부 역시 산후안에 중심을 두고 동 푸에르토리코의 두 개의 스테이크와 한 지방부 및 영어권 국가들인 버진 제도, 영국령 버진 제도, 앵골라 섬, 세인트키츠네비스 섬, 앤티가바바다, 몬세라트산, 도미니카와 바베이도스를 관할할 것이다.

현 서인도 선교부 본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트리니다드에 위치하며 트리니다드 토바고 선교부로 새롭게 명명된다. 이 선교부는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권 국가들과 제도를 포함하고 영어권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이아나, 그레나다, 세인트 루시아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을 계속해서 관할할 것이다.

프랑스어권 지역에는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프랑스령 기아나, 세인트마틴 섬이 있다. 네덜란드어권 지역에는 세인트마틴, 세인트 유스타티우스, 사바를 포함하는 네덜란드령 앤티리스 북부 제도와

수리남이 있다.

새 선교부는 장거리 이동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선교부 회장이 선교사

및 지역 신권 지도자들과 더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007년 2월 10일 Church News 번안

고정관념을 깨뜨린 교회의 다양성

할렘에서는 흑인 감독이 회중을 기도 로써 인도한다. 마이애미에서는 이웃들이 밝은 노란색 예배당으로 들어가 아이티어로 서로 인사를 나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한 교사가 중국어로 반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한편, 플로리다에서는 모든 회중이 미국 수화로 울동을 하며 노래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한 어린이는 초등학교에서 스페인어로 첫 간증을 전한다.

대개 미국의 교회 회원들을 떠올릴 때, 유타 주의 중산층 백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 비해 이러한 광경은 매우 대조적이다. 이런 모습은 광범위한 문화와 경험을 반영하면서 다양해지고 있는 교회 회원들의 인종적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여러 매체들도 이런 다양성에 주목하여 *Philadelphia Inquirer* 지는 “대도시의 중심부를 파고드는 몰몬들- 더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계를 유인하고 있는 교회”라고 보도했고, *Denver Post* 지는 “대도시 중심에 집중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이라는 글을 실었다. 또한 *Chicago Reporter* 지는 “피부색을 넘어선 종교”라는 기사를, 그리고 *New York Times* 지는 “더 넓은 예배당이 필요한 할렘의 몰몬들”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종교학 및 역사

학과와 장 십스 명예 교수는 기자들이 종종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대도시 중심에서의 교회 성장에 대해 놀라움을 표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몰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으면 전 ‘모든 곳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50개 이상의 후기 성도 예배가 폴란드어, 나바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를 포함해 총 20개의 다른 언어로 열린다.

교회 성장은 대부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자발적인 전임 선교사 프로그램에 기인하는데, 그 규모 역시 세계 최대이다. 5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140개 이상의 국가의 347개 선교부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라며 칠십인 회장단의 얼 씨 텅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희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동시에 텅기 장로는 곧 기독교 신자 중에서 후기 성도들이 가진 신앙의 독특함을 지적했다. 그는 교회가 구교나 신교도 아니며 고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

이라고 말한다.

교회는 또한 국제적으로 더욱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다. 전체 교회 회원의 절반 이상이 현재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1996년 2월에 달성되었다.

거의 천삼백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의 교회 회원의 수는 조셉 스미스가 뉴욕 북부에 교회를 조직한 1830년 4월 당시 여섯 명이라는 회원 수와 비교해 보면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문화와 국가 가운데서 이뤄진 이와 같은 교회의 성장은 교회에 주된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경전, 대회 보고, 위성 방송, 공과 교재, 잡지,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100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 그 결과 생긴 번역 시스템은 세계의 동종 최대 규모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2000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고든 비 힝클리 교회 회장은 교회의 성장이 몇몇 주된 도전과제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는 지역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예배당을 마련하는 일입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말했다.

더 많은 예배당에 대한 수요에 따라 매년 수백개의 건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신축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 회원이 전혀 없었던 지역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은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 교회가 설립된 일부 국가의 몇몇 지도자들은 교회에 들어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지도자의 책임을 맡았다. 이 새로운 지도자들에게는 역할 모델이 거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교회는 세계 곳곳에 총관리 역원들이 관리하는 지역 사무실을 설립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그 지역의 모국어로 그들을 훈련시킨다.

도약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교회 성도들이 단합하는 과제가 생겼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회원들 간의 다양성 증대는 단지 현상이지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단합이지

다양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단합할 것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믿음과 행동에 있어서 불가피한 개인적인 차이를 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따라서 미국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지역 지도자들을 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종 우리의 문화와 서구의 문화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말할 때 하나가 됩니다.”라고 대한민국 서울의 교회 회원 고승현 형제는 말한다. ■

종파를 초월한 그룹, 템플 스퀘어에서 음악회 열다

20 07년 2월 다양한 종교를 대표하는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솔트레이크 인터페이스 라운드테이블의 연례 음악회에 참석한 가운데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종파 초월 주간의 절정을 축하했다.

“기도의 소명, 평화의 소명”이라는 음악회는 인간 영혼을 위한 음악적 찬사로 소개되었다. 이 음악회에서는 이슬람, 기독교, 정통 유대교를 각각 대표하는 세 명의 선창자들이 관객들에게 기도에 대한



불교 신자들로 구성된 타iko 드러머스가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연주 중이다.

메시지를 전했다. 유타의 풍부한 종교적 전통의 단면을 대표하는 일곱 단체들이 기도와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일련의 음악 순서들과 춤을 선보였다.

솔트레이크 교회 공보 위원회의 제임스 핑그리 박사는 관객들을 환영하고 이 행사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폐회곡이었던 “땅 위에 평화 있게 하소서”를 언급하면서 이 곡의 작곡자들의 딸이 음악회 준비위원회에게 이 곡을 사용하도록 허가했음을 밝혔다. 핑그리 박사는 그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이 노래는 바로 이런 행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제 부모님은 매우 기뻐할 겁니다.”

또한 유타 주지사 존 엠 힌츠먼 2세는 종파간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음악회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힌츠먼 주지사는 유타가 문화 및 종교적 다양성 속에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랑과 희망은 영어에서 가장 강력한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음악인들은 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랑과 희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의 웨슬리 벨링어스가 “La Paix”(평화)를 연주하면서 프로그램의 음악 순서를 시작했다. 그런 후 아르볼 루킹 호스는 인디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사방향 기도를 했다.

전통 힌두 의상을 입은 가야트리 자야라만은 바라타나티얌 춤인 ‘가네샤 카우투밤’을 선보였다. 통가 웨슬리언 합창단은 아니토니 마우의 지휘로 “예수여, 온 세상이 당신 아래 엎드려 절하리이다”를 불렀다.

불교의 타이코 드러머스는 스탠 히라이와 옥든 불교 사원의 지휘로 북 공연을 선보였다. 조도신수 불교도들에게 북은 부처의 목소리를 상징한다.

이슬람 사회의 이크라 아카데미에서 온 학생들은 두 곡의 이슬람 노래 “Lejla Ramie”와 “Talitha Two Moons.”를 아라비아어로 불렀다. 수많은 종교 전통들을 대표하는 단원들로 이루어진 유타 대학교의 대학생 보컬 앙상블은 “구유에서 나신 예수”를 공연했다.

청중이 일어서서 “땅 위에 평화 있게 하소서”를 부른 후 바하이교도인 잔 세이드가 평화의 폐회 기도를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회를 계획한 솔트

레이크 인터페이스 라운드 테이블에 감사를 표했다.

“오늘 밤은 조화, 단합, 그리고 개방을 의미합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기도, 믿음, 문화를 존중합니다.”라고 헤더 화이트블럼은 말했다.

솔트레이크 인터페이스 라운드 테이블은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개최위원회 후원 아래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올림픽에 출전한 다양한 믿음을 가진 선수들이 모두 각자의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종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종파를 초월한 존중, 이해, 그리고 올바른 인식을 장려하고자” 설립되었고 매달 모임을 갖고 있다. ■

교회가 멕시코 프로그램을 지원

스테파니 롱, 교회 잡지

1929년부터 멕시코 정부는 현재 가족의 통합 발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DIF)으로 알려진 단체를 통해 어린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주, 정부,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 활동하는 DIF는 가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돕는 데 기여해 왔다. 교회는 계속해서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DIF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북 지역의 지역 복지 책임자인 루이스 카마리요는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기 원했다. 그와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그 지역 어린이들의 문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많은 어린이들이 두 가지 원인으로 고통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에보 레온 주에는 집 없는 어린이들

은 없어요. 그러나 학대로 고통받거나 버림받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라고 카마리요 형제는 말한다.

카마리요 형제와 다른 회원들은 DIF가 지역 수양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DIF를 지원하고자 했다. 그는 DIF의 어린이와 가족 보호 책임자인 알레한드로 알베르토 모르톤 마르티네스 박사에게 연락하여 이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이후로 회원들은 수양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모르톤 박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교회와 유타 주 수양부모 프로그램의 지원 덕분에 DIF와 다른 관계자들은 수양부모 프로그램이라는 주제에 대해 귀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몇 분의 봉사 선교사들이 유타에서 이

곳 몬테레이까지 와서 약 50명의 훈련자 지망자들에게 기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라고 카마리요 형제는 말했다.

인도주의 서비스(Humanitarian Services)를 통해, 카마리요 형제, 모르톤 박사 및 몇몇 다른 사람들은 유타까지 와서 유타 어린이 및 가족 봉사부(Utah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로부터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 과정에서 수양부모 프로그램을 세우고 운영해 가는 기본 방법이 다루어졌고, 참가자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가 주어졌다. 유타에 있는 동안, 참가자

들은 교회 복지부와 LDS 가족 서비스를 방문했다.

누에보 레온에 있는 수양부모 프로그램은 여전히 개선 중에 있지만 카마리요 형제와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은 교육들이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을 받은 후 DIF는 훈련자 지망자 모집 및 선발 과정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경험할 아이들은 교회를 통해 모집 및 선발 과정이 개선되기 전에 수양가정에 배치된 아이들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카마리요 형제는 말했다.

지금까지 DIF와 함께 일한 것은 카마리요 형제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좋은 경험이었다. “DIF에서 일하는 분들처럼 좋은 일을 하려는 결심이 확고한 분들로 구성된 단체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카마리요 형제는 말한다. “이런 단체와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카마리요 형제는 수양부모 프로그램의 개시뿐만 아니라 휠체어, 의료 장비, 가구들을 기증하는 DIF와의 합동 인도주의 봉사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을 도왔다.

가족 정원 프로그램, 남아프리카의 회원들을 북돋우다

남아프리카 더반 스테이크 리차즈 베이 와드의 많은 가족들이 전임 선교사들과 교회 복지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일년 차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과일과 야채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리차즈 베이 집회소 주변의 흑인 거주지에 사는 많은 교회 회원들이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겹게 생활한다.

2006년에 이 지역에서 봉사한 부부 선교사 잭 데빗슨 장로는 에시크하위니 집회소 주변의 교회 소유 공터와 몇몇 회원들의 뛰어난 정원 기술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교회 소유 공터는 현재 지역 회원들을 돕고자 정원으로 쓰이고 있다.

사진 제공: 나디, 펙 데이먼슨

떠올리게 되었다. 일년 내내 야채를 재배할 수 있고 잉여 농산물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쉽게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교회는 그 당시 회원들의 필요에 따라 세 개의 작은 임시 교회 건물(예배당 하나와 두 개의 작은 교실)을 세울 부지를 매입했었다. 이 건물들과 잔디밭, 꽃밭, 그리고 주차장은 부지의 삼분의 일만으로도 충분했다. 가로 45미터 세로 80미터의 나머지 땅에는 풀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부지는 훗날 필요할지 모를 영구적 건물을 위해 남겨 두었다. 부지 주변에는 담장을 세웠다.

데이비스 장로가 연장, 관개 시설 및 다른 장비들을 사는데 필요한 자원을 축적하고 연장과 물자들을 보관할 건물을 짓는데 6개월이 걸렸다. 기금은 후기 성도 인도주의 서비스(LDS Humanitarian Services)의 지원과 가족 및 친구들의 넉넉한 기증으로 마련되었다.

견고한 창고 건물은 안전뿐만 아니라 부지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꼭 필요했다. 에시크하위니에는 자동차를 가진 회원들이 몇 명 없어서 이 건물이 없을 경우 농사를 지을 때 무거운 연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할 형편이었다. 부지에 남겨 두었다가는 물건들을 도난 당할 위험이 있다. 또한 몇몇 경작자들은 연장을 마련할 처지가 아니다. 이곳에 세워진 건

물에서 회원들은 수동 및 전동 연장들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워드 정원 계획의 일부로서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이 연장과 장비의 일부 품목들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 그곳에 정원을 만들도록 도울 수도 있다. 모든 연장과 전동 장비들은 소형 트럭으로 운반이 가능하다.

2006년 3월부터 남아프리카 더반 선교부 리차즈 베이 지역에 있는 열두 명이 넘는 전임 선교사들이 가족 정원과 창고 건물 및 퇴비 시설을 만드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리차즈 베이 워드의 테드 볼드윈 감독이 창고 건물의 기초 공사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일과 시멘트 작업을 도왔다.

데이비스 장로와 나머지 장로들은 경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땅을 정리하는 일에 주력했다. 본격적으로 경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관개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자갈이 제거되었다. 종종 청소년들이 와서 도왔고 장비 사용법을 배웠다. 가로 6미터, 세로 10미터의 밭과 그 사방에는 1미터 폭의 길을 내기로 했다.

각각의 밭이 정리되어 경작할 준비가 되면 그에 따라 에시크하위니 지역의 가족들은 밭을 넘겨 받아 겨울 채소들을 심을 준비를 했다. 일부 가족들은 밭에 심을 묘목을 미리 가정에서 길러왔다.

6월 초에는 개인 밭의 수가 마침내 목표 치인 30개에 이르렀다. 진행되는 과정 내내 지역 사회는 이 활동을 주목했다. 거의 매일 몇몇 사람들은 가는 길을 멈춰 서서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질문을 했다. 이런 대화들 중 일부는 선교사 토론으로 이어졌다. ■



남 아프리카 더반 스테이크 리차즈 베이 워드의 회원들이 이제 일 년이 된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사진 제공: 나디, 펙 데이비스

2007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2007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호 친구들만의 4쪽과 5쪽에 있는 “가족의 신앙”을 참조한다.

1. 초등학교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찾아보게 하고 다른 그룹은 모사이야서 13장 20절을 찾게 한다. 두 그룹이 찾은 구절을 동시에 읽게 한다. 출애굽기에 나온 경전 구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모사이야서에서 아빈 아다이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며 한 단어씩 말하면서 이 구절을 암송할 수 있게 돕는다. 처음 몇 번은 자신의 경전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한다.

배심제 토론을 진행한다. (“배심제 토론”,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163쪽 참조) 다양한 연령 대의 교회 회원 세 명 내지 다섯 명을 초등학교에 초대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배심원단을 구성한 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해달라고 한다. 배심원단에게 여러분이 할 질문들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혹은 “몇 살이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안들어도 됩니까?” 항상 부모님 즉, 지상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 모두를 존경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진을 보여주고 부모님을 존경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간증한다.

2. 어린이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아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밤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세 개의 정거장을 세운다. (“정거장 교실 활동”,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80쪽 참조) 어린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정거장들을 돌게 한다. 정거장 1에서는 “사랑의 기도”(어린이 노래책, 102~103쪽)나 가족에 관한 다른 노래를 살펴보고 가족들에게 그 노래가 주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한다. 정거장 2에서는 가족 중 교회에 제일 처음 들어온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가정의 밤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들 조상이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는 과제를 준다. 정거장 3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어린이들이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저렴한 간식을 선택한다.

“가족”(영어 어린이 노래책, 194쪽,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친 11쪽)을 노래한다.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읽기,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간증한다.

3. 노래 발표: “사랑의 기도”[영어 제목: “여기서 사랑을 말합니다”] (어린이 노래책 102~103) “여기서 영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러시아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프랑스어를 말합니다”와 같은 표지판을 교실 주변에 걸어 놓는다. 어린이들에게 그 언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여기서 사랑을 말합니다”라고 쓰여진 다른 표지판을 보여준다. 어떤 장소가 그런지 물어본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가정에서 사랑스런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여러분을 도와 사랑을 말하는 장소를 그리도록 한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노래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어머니께서 매일 가족과 기도할 때”를 부르고 한 소녀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한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어린이는 몸짓을 통해 가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어린이는 노래의 가사 중 “기도할 때”가 나올 때 기도할 때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라는 가사에서 기도를 하고, “두려움 없애네”에서 평화로운 표정을 짓는다. 가사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어린이에게 “사랑의 기도”라고 적은 표지판을 가리키게 한다.

이번에는 한 소년에게 노래의 2절에 나오는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몸짓으로 가사를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역시 표지판을 가리키게 한다. “여기서 사랑을 말합니다” 표지판 옆에 구주의 그림을 전시하면서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가르친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그린 그림이 현재 자신의 집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인 비키 에프 마쭈모리 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비회원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아버지가 신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곡은 제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서 보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과 저희 가족이 대대로 지켜나가야 할 표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영원한 가정을 준비하도록 격려한다. ■



내 인생의 공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말씀과 공과를 듣는다. 주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그 말씀과 공과들은 우리 영의 자양분이 된다. 내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 많은 공과와 말씀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공과에 대해 두 형제 자매가 간증을 보내왔다.

“공과를 통해 얻은 기적”

김미경 자매, 순천 지방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누가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바른 기도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처음 배우는 것처럼 그 내용이 새롭고도 강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주일학교 공과를 위해 다시 누가복음 1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평소에도 많은 깨달음을 얻지만 그때의 느낌은 더 특별했습니다. 반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그 진리가 제 마음 속에 명확하게 그려지고 그것을 적용해야겠다는 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은 큰 아이의 자폐 증세가 심해져서 가족 모두가 힘들 때였습니다. 저는 무려 마흔아홉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힘겨워 하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고 공과를 하면서 깨달았던 그 원리에 따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가 바로 잠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적어지고 스스로도 편안해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공과를 통해 배웠던 진리를 실천하는 순간 저에게는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예리하게 듣고 계심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일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과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그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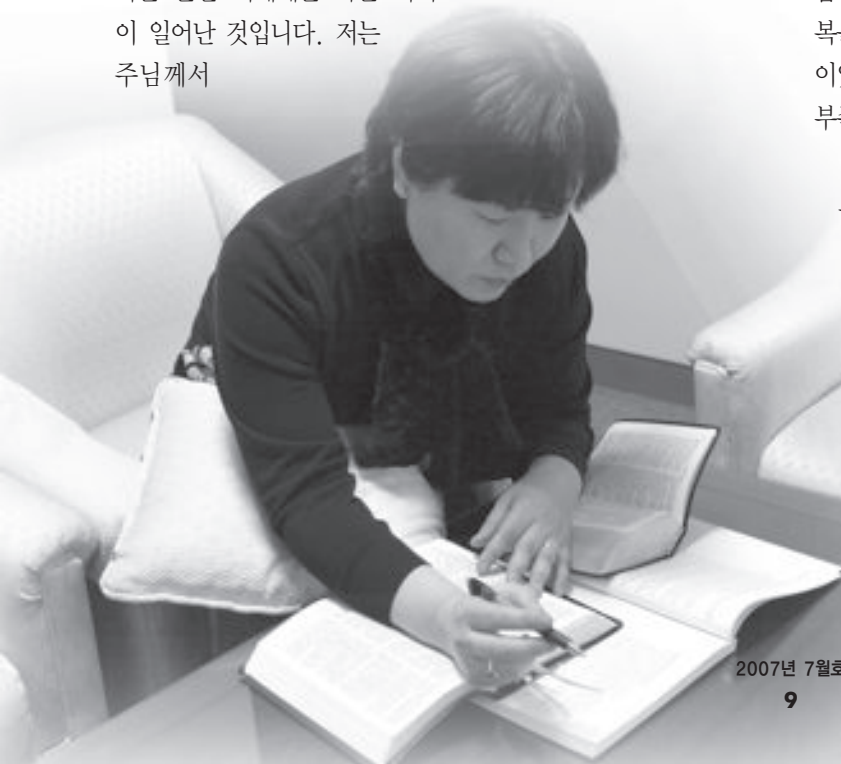
“종교 교육원 수업을 통해 겸손해지다”

신동하 형제, 서울 스테이크

스테이크 독신 회원 대표라는 부름이 저에게 왔을 때 저는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배우고 적응해야 할 것도 많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부름을 받긴 했지만 저에게는 잘 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고독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종교 교육원에서 부름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교회의 부름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할 목적으로 저를 신뢰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고자 할 때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친히 불러주신다는 사실은 제게 크나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름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감사드릴 일이었습니다. 그 수업 후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부름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실히 부름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후에 기도의 응답이 왔는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여러 형제 자매님과 같이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선한 형제 자매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들었던 그 수업이 저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겸손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끊임없이 연마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



“나의 동료 종들이 너희에게”

1829년 5월 열다섯째 날,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사스케하나 강 인근 숲을 거닐었다. 5월 햇살은 찬연했으며 서서히 청록색을 띠기 시작한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하고 상쾌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금판에 언급되어 있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에 대해 알고자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줄기 빛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인 침례 요한이 내려와 이렇게 말했다. “나의 동료 종들이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바야흐로 그 옛날 거두어졌던 신권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아론 신권이 회복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은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이들 열쇠가 부여된 사건은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권이며, 인류의 구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론 신권 형제가 주님의 신권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성찬을 전달하고, 침례를 주고, 남몰래 봉사하는 아론 신권 형제들은 침례 요한의 동료요, 조셉과 올리버의 동료들이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는 아론 신권 회복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모임이 열렸다.

마산 스테이크

“나는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마산 스테이크에서는 2007년 5월 19일 마산 와드에서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청남뿐 아니라 청년도 함께 초대받았다. 약 30명 정도의 청

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구지원 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의 적성과 미래의 직업관’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와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설문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이에 부합하는 직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각 와드와 지부별 청소년들이 아론 신권의 목적을 주제로 제작한 영상 편지를 보면서 모임을 마쳤다.

부산 스테이크

부산 스테이크의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은 스카웃 선서식과 함께 열렸다. 2007년 5월 12일, 수정 와드에서 있었던 2007년 LDS 지구연합회 합동 선서식 및 아론신권 회복 기념 모임에는 청남 40명과 청소년 지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LDS 지구연합회발족 10년을 기념하고, 올해 신입대원이 되는 청남들의 스카우트 선서식을 진행했다. 매듭법과 구급법, 신호법과 스카우트 예절, 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도 이어졌다. 예배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에서는 여러 말씀들을 들었다. 이계원 금정 와드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실패를 극복함으로써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크 회장단 제2보좌인 우일암 회장은 “청남 여러분은 천사의 성역을 베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신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했다.



서울 스테이크

2007년 5월 12일 토요일, 신당 와드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 및 표준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모임은 배동철 스테이크 회장이 감리했다. 선교 사업이란 주제로 준비된 모임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정거장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정거장 활동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다섯 개의 정거장으로 나누고 그곳에서 각각 활동을 하면서 진행됐다. 먼저, 영적인 방은 두 명이 서로 동반자가 되어 주어진 주제에 대해 구도자 역을 맡은 고문에게 교리를 설명하고 간증을 나누는 활동이었다. 신체적인 방은 선교사로서 준비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활동이었다. 또한 정서적인 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재정적인 방은 선교 사업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알고,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까지의 구체적인 돈의 액수를 계산해보는 활동이었다. 마지막으로 게임방에서는 보드 게임을 통해서 표준에 맞는 행동과 그른 행동을 배울 수 있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정거장 활동을 통해서 선교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서울 동 스테이크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은 각 와드별로 진행되었다. 모임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각 와드별로 정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아론 신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그 중에 상계 와드에서는 5월 26일 오후 4시에 모임이 있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및 의의를 설명하고 교회 지침에 따른 청남, 청녀의



선교 사업에 대해 배우고 있는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들.

활동 상황 및 청소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사항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회와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청소년들의 학업과 성장기를 잘 보내기 위해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과 현재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매듭법을 배우고 있는 부산 스테이크 스카우트 대원들.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서울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5월 12일 토요일 오후, 송파 와드에서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스테이크 회장단 정문영 회장과 정운채 형제는 아론 신권 회복 기념모임의 목적은 신권의 정의와 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남들이 합당하게 아론 신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각 와드, 그리고 지부의 청남 회장들의 노력으로 청남들이 나아갈 길을 예비하는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당부의 말도 함께 했다.

이날 정운채 형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는 청남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활동을 맡은 정준탁 형제의 도전 골든벨은 각 와드와 지부의 형제들을 하나로 만들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비록 이날 모임은 짧은 시간이었으나 아론 신권의 중요성을 배우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청남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여 서로의 부족함과 장점을 나눌 수 있는 합동 모임을 계속할 예정이며, 청남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곽채림 기자, 김민정 기자, 이인주 기자, 이지은 기자, 이진희 기자, 기사 제공 : 김종욱 형제, 강현오 형제〉

한 뼨 더 성장하기 위하여

성장통. 최근에 있었던 부산과 울산, 그리고 대구 지역의 대대적인 지역 개편을 이보다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지난 5월 27일,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 합병이 공식 발표 되었다. 1981년 부산 서 스테이크가 조직되면서 나눠지게 된 부산 지역이 19년 만에 다시 부산 스테이크로 합쳐진 것이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산 지역 합병과 동시에 기존에 부산 스테이크

산하였던 울산 지역이 분리되어 지방부로 재조직되었다. 새롭게 조직된 울산 지방부에는 경주와 포항도 포함되었다. 두 지역은 대구 스테이크 소속이었다가 분리 된 것이다. 합병과 분리, 그리고 재조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 지역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변화에 대한 반가움, 그리고 석별의 아쉬움이 교차했다. 부산 지역 합병 공식 발표를 위해 5월 27일 부산 스테이크에서 있었던 특별 모임에서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은 그 모든 변화와 감정의 교차를 성장통으로 설명했다. 송 회장은 무릎이 아프다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보니, 성장통이었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다. “저희 아들은 그 후 정말로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성장통은 성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진통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통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통입니다. 이 지역이 더 성장하기 위해 겪는 변화인 것입니다.”

비단 송평중 회장뿐 아니라 이날 모임의 연사들은 모두 감사와 사랑을 표하며 회원들을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 서 지방부의 마지막 회장으로 봉사한 강신용 형제는 지난 시간동안 열심히 봉사한 지부役員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표했고, 부산 스테이크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함께 우정을 나눌 것을 당부했다. 이순철 부산 스테이크 회장은 부산 서 지방부 회원들과 울산 지역 회원들에게 “환영 말씀과 작별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라는 말로 반가움과 아쉬움을 대신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스테이크는 전국에서 가장 큰 스테이크가 되었으니 이곳에 새로운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모임 후 함께 자리한役員들. 좌측부터, 부산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안경일 회장, 제2보좌 우일안 회장, 이순철 회장, 전 부산 서 지방부 강신용 회장, 지역철십인 이용환 장로,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

야 한다.”라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이용환 장로는 지금의 변화가 결코 단기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많은 지도자들이 기도한 끝에 주님께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신 응답이라고 말씀했다. 또한 두 개의 스테이크로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 또 다른 특별 모임이 포항에서 있었다. 대구 스테이크에서 경주와 포항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지지를 묻는 모임이었는데 많은 회원들이 이별의 아쉬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배덕수 대구 스테이크 회장 또한 말씀을 통해 “딸을 시집보내는 친정아버지의 심정처럼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사랑 많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서 성장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라고 전했다.

6월 3일에는 울산 지방부 대회가 있었다. 1982년 당시 울산 지방부가 부산과 대구 산하로 통합된 후로 실로 18년만의 지방부 대회였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신성, 호계, 방어진 등 울산 각 지역의 회원들과 새로 편입된 포항과 경주의 회원들까지 참석하여 대회장인 호계 와드를 가득 메웠다. 이날 모임에서는 울산 지방부 회장단이 구성되었다. 오랫동안



지방부 대회가 끝나고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 지역 및 울산, 대구 지역 역사

- 1953년: 구 부산역 옆에 있었던 부산 공회당에서 매주 예배를 봄(미군 후기 성도, 김호직 박사 가족, 젊은 학생들).
- 1956년: 부산 지부 조직.
- 1962년 7월 17일: 대구 중앙 지부 조직.
- 1963년 10월: 부산 동구 지부 조직.
- 1970년 1월 25일: 남부 지방부에서 영남, 호남 지방부로 분리.
- 1974년 9월 22일: 영남 지방부에서 대구 지방부 분리.
- 1976년: 마산 지방부 분리.
- 1976년 3월 11일: 네 명의 선교사가 울산에서 선교 사업 시작.
- 1976년 8월 22일: 대구 지방부에서 포항 지부 조직.
- 1979년 9월 6일: 부산 스테이크 조직.
- 1979년 12월: 경주 지역 선교 활동 재개.
- 1982년 4월 25일: 울산 지방부가 부산 스테이크와 대구 지방부 산하로 통합됨.
- 1983년 5월 8일: 대구 스테이크 조직.
- 1986년 6월 1일: 부산 서 스테이크 조직.
- 1995년 3월: 부산 서 스테이크에서 마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로 분리.
- 2007년 5월: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가 통합됨. 울산이 분리 되어 울산 지방부가 됨. 대구 스테이크에서 경주 지부와 포항 지부가 분리 되어 울산 지방부와 통합됨.



사진 촬영: 문진성 형제

포항과 경주 지부가 대구 스테이크에서 분리 되는 것을 알리는 모임 후, 마지막으로 한 자리에 모인 회원들.

발전하여 부산, 대구 지역에 성전이 건립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지런함과 정직, 충실한 십일조,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고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했다.

세 지역에서 있었던 특별 모임이 끝난 후, 부산과 울산 그리고 대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회원들은 순수한 신앙과 모범을 통해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오른손을 들어 지지를 표했다. 교회의 태동을 알린 부산을 비롯하여 선교사업의 힘이 넘치는 울산, 그리고 강한 간증을 가진 회원들이 있는 대구는 한국 교회에 있어 튼튼한 뿌리나 다름없다. 그 뿌리가 이제 한 뼘 더 성장하려한다. 변화라는 성장통을 겪은 뒤 한층 더 크고 단단하게 변해 있을 부산과 울산, 그리고 대구 지역에 새로운 스테이크들이 생기고 성전이 생기는 것도 먼 훗날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

〈이인주 기자. 기사제공: 문진성 형제〉

사진 촬영: 이계원 형제

교회 지도자로 봉사해온 강형구 형제가 지방부 회장으로 부름 받았고, 추동수 형제와 구자길 형제가 각각 제1보좌와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강형구 회장은 이날 찬송가로 부른 세 곡의 제목으로 회원들에 대한 당부 말씀을 대신했다. “복음이 지닌 평화는, 풍성한 주 은혜로, 약한 자여 겸손하라.”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은 울산 지방부가

부산 지역 통합 및 울산 지역 분리 특별 모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회원들



사랑 나눔 음악회



2007년 5월 19일, 부산시 금정구에 자리 잡고 있는 금정문화회관 소강당은 2007 부산 스테이크 예술제를 위해 악기를 조율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소리로 분주했다. 공연 준비가 끝나고 예술제가 시작된 건 저녁 6시, 이미 많은 회원들이 300석을 가득 메웠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사물놀이로 힘차게 문을 연 예술제는 마지막 순서까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달려갔다. 사물놀이에 뒤이어, 자신보다 큰 악기를 들고 등장한 어린이 앙상블은 귀엽고 깜찍한 무대로 큰 박수를 받았고, 형제 중창단과 자매 중창단은 트로트를 재즈로 바꿔 부르는 재기 넘치는 무대로 박수

갈채를 받았다. 금정 와드에서 태동한 관현악단 아마빌레 앙상블은 섬세하고 풍부한 선율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초청 인사들의 무대는 예술제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인 양산 학춘과 소프라노 엄말영 자매의 독창, 그리고 테너 김신환 형제의 독창은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선교사 밴드의 노래는 관객을 열광시켰다. 마지막 순서인 남산놀이마당 공연단의 풍물놀이에 맞춰 모든 관객들이 박수 치고 어깨를 들썩이는 가운데 예술제는 막을 내렸다. 이날 모임은 부산 지역과 울산 지역의 분리 전 마지막 모임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지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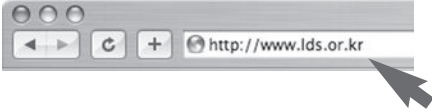
천안 와드 헌납식



2007년 4월 22일, 성찬식을 끝낸 백이십여 명의 성도가 다시 천안 와드에 모였다. 천안 와드 헌납식을 위해서였다. 1995년 현 위치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이래 천안 와드는 그동안 두 번의 증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대지 322.47평에 건축면적 147.28평의 새로운 천안 와드 건물은 엘리베이터 설비

는 물론 화장실도 각 층에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신건축공법과 디자인이 적용되어 새롭게 태어났다. 최종산 천안 와드 감독은 청소년과 초등학교 어린이가 많은 와드의 특성 상, 활동에 적절한 시설이 천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꿈꿔왔고, 이제 더 많은 회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신앙을 행사하고, 가정을 발전시킴으로써 더 큰 축복과 기회를 갖게 되기를 축원하였다. 정태걸 청주 스테이크 회장은 우리가 현재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거듭남으로써 더욱 겸손해지고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듯이, 이 건물 또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다시 거듭난다는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윤희 장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비로소 우리의 헌납은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하며 교회에 대한 봉사와 시간 활용, 그리고 재능 활용과 물질적 재산의 사용 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헌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헌납식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한 천안 와드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헌납식을 더욱 빛냈다.

〈기사 제공: 정태걸 청주 스테이크 회장〉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보위원회,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를 방문

공보위원회는 2007년 6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모임을 가졌다. 제일회장단의 축하 편지와 물문경 합본을 전달하기 위해 약속된 이 모임에는 지역 칠십인인 이용환



장로와 공보위원장인 최석구 형제, 공보 선 교사인 마우어 부부와 자리를 주선한 주덕영 형제가 함께했다.

대구 스테이크 <조경희 기자>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2007년 4월 15일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에서는 이상교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로 대구 스테이크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모임이 있었다.

대전 스테이크 <오순임 기자>

2007 청소년 체육 대회 2007년 4월 14

일 토요일, 대전 성룡 초등학교 운동장에 스테이크 문명규 회장의 감리로 60여명의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모였다.

전반기 대전 스테이크대회 2007년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설양환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로 대전 스테이크 센터에서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김미남 형제와 함께하는 노년의 모임 2007년 5월 20일 대전 스테이크 센터에서 김미남 형제와 함께 하는 노년의 모임이 진행되었다.

지역 복지부의 메시지

지역 복지부는 지역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교회 지침서, 제2권, 249쪽*, '영적인 복지'(우리가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와 '현세적인 복지'(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자립하는 것)에 나와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 줍니다. 이 난을 활용하여 우리는 영감에 찬 메시지와 간증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제언과 자원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가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지의 원리는 "교회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의 부름과 임무를 통해 봉사하는"(*교회 지침서, 제2권, 255쪽*)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이라헤물라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앨마서 6:6*)습니다. 이 성구에서 우리는 그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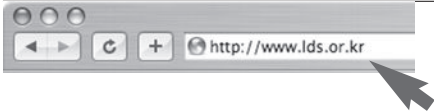


(자주 함께 모였으며) 또한 모이는 이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자주 함께 모이라는 명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위에 언급된 원리의 첫 부분입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우리는 함께 모이는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성찬을 취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우리가 앉아 경청하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영이 함께함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

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들 중의 몇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 한 설교에서 구주의 다음 가르침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사도 행전 20:35*)

우리가 감독으로부터 부름과 임무 지명을 받을 때,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수고하며, 우리 자신을 줍니다. 이렇게 행하면서,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교리와 성약 50:22*)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무엇인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주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할 때, 교화되기를 기원합니다. ■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산 스테이크

초등학교 신앙개조 암송의 날 2007년 3월 31일 토요일 마산스테이크 센터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개조 암송 대회가 열렸다.

〈기사 제공: 김은미 자매〉

체육 대회 2007년 5월 24일 진해 공설 운동장에서 마산 스테이크 체육 대회가 있었다. 김충석 스테이크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체육 대회는 우려와는 달리 맑은 날씨 속에 즐겁게 진행됐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장호진 기자>

체육 대회 2007년 5월 24일에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에서 체육 대회가 열렸다. 성일 중학교에서 모임을 갖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체육대회는 비가 오는 관계로 동대문 와드에서 열리게 되었다.

서울 북 스테이크 <이숙희 기자>

금촌 지부 와드로 승격 2007년 4월 22일 금촌 지부가 금촌 와드로 승격되며 첫 번째 와드 대회를 가졌다.

서울 영동 스테이크 <이진희 기자>

최상혁 형제 초청 특별모임 2007년 4월 29일 안식일 저녁에 서울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미우주항공국에서 근무하는 최상혁 형제를 초청하여 특별 모임을 가졌다.

순천 지방부 <조연화 기자>

초등학교 활동의 날 2007년 5월 12일,



부에서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일 형제 가족을 초청 특별 모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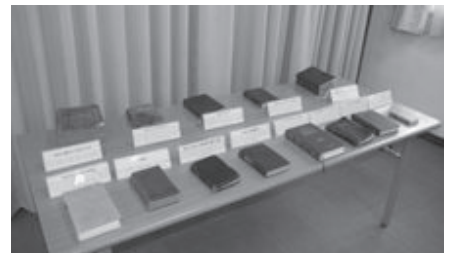
전주 스테이크 <이나나 기자>

청년 독신 무도회 2007년 5월 5일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에서 7개 지역 청년 독신들이 함께한 무도회가 열렸다. 전주 스테이크를 비롯하여 대전, 광주, 부산, 마산 스테이크와 순천, 부산 서 지방부 청년 독신 120여명이 모였다.

청주 스테이크

중부 종교 교육원 교육의 날 행사 2007년 4월 29일 청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영어 성경의 역사-흥정역 성경을 갖기까지”라는 주제로 김대연 형제를 연사로 초빙하여 중부 종교 교육원 교육의 날 특강을 가졌다.

〈기사 제공: 정태걸 청주 스테이크 회장〉



백년이 넘은 라틴어 성경, 흥정역 성경, 흥정역 성경 초판 영인본, 1백년이 넘은 물문경 및 교리와 성약이 전시돼 있는 모습.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감독: 하봉채(전임: 정상조)

마산 스테이크

마산 와드 감독: 김치원(전임: 홍세일)

부산 스테이크

부산 서 지방부가 부산 스테이크에 통합

울산 지방부

울산 지방부 창설

지방부 회장: 강형구

제1보좌: 추동수

제2보좌: 구자길

경주 지부(대구 스테이크) → 경주 지부

방어진 와드(부산 스테이크) → 방어진 지부

신정 와드(부산 스테이크) → 신정 지부

포항 지부(대구 스테이크) → 포항 지부

호계 와드(부산 스테이크) → 호계 지부

방어진 지부 회장: 전덕민(전임: 구자길)

호계 지부 회장: 김재균(전임: 추동수)

재능 발표 과정을 통해 신앙과 재능을 키운다는 목표로 지방부 초등학교 활동의 날 모임을 가졌다.

하일 형제 초청 특별 모임 2007년 4월 21일 6시 순천 지방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2명



김정엽 장로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캘리포니아
오를랜드 선교부



송수정 자매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템플 스퀘어 선교부